

내년도 해외건설 수주 600억 달러 이상 가능할 듯

- 올해 3/4분기까지 400억 달러 넘어서, 세계 건설시장 회복세 적극 활용해야 -

김 태 업 | 해외건설협회 정보기획실장

20 12년 3/4분기까지의 해외건설 수주가 전년 동기의 실적을 조금 웃도는 401억 달러로 마감되었다. 연초부터 유로존 재정 위기가 해외 건설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바심을 냈던 것을 감안하면 양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올 3/4분기까지 401억 달러

사실 2012년 초반에는 해외건설 수주 증가세가 눈에 띄게 감소하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대한 원인이 유로존 경제 위기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우리 업체의 수주 확정 상태에서 발주처의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인한 계약 협상 지연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주요 공사

의 계약이 잇달아 지연되면서 우려는 지속되었다.

1/4분기 수주 금액이 82억 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의 60%선에 머물렀으며 이러한 상황은 5월 말까지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다행히 6월 들어 이라크에서 77.5억 달러 규모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계약에 성공하고 그간 협상이 진행되던 몇 건의 대형 공사 계약이 체결되면서 수주 금액이 예년 수준으로 올라섰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작년 실적 이상인 600억 달러대의 수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주 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동에서 전체 금액의 50%가 넘는 223억 달러를 수주하

2012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 (해외건설협회)

(단위: 백만 달러, %)

지역	누계	2011. 9	2012. 9	증감률	공종	누계	2011. 9	2012. 9	증감률
계	520,108	37,766	40,115	6.2	계	520,108	37,766	40,115	6.2
중동	309,612	22,816	22,336	-2.1	토목	95,644	4,598	5,515	19.9
아시아	153,679	11,521	11,028	-4.3	건축	121,987	4,761	11,449	140.5
아프리카	16,813	840	1,080	28.6	플랜트	282,245	26,612	21,794	-18.1
중남미	21,346	1,518	5,389	255.0	용역	6,759	1,035	609	-41.2
기타	18,658	1,071	282	-73.7	기타	13,473	760	748	-1.6

특집 2013년 건설경기 전망

여 고유가로 인한 중동 특수를 잘 반영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지금까지 110억 달러를 수주하여 지난 몇 년간의 수주 증가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중남미에서의 수주도 대폭 늘어 시장 다변화를 위한 결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의 수주 금액은 2~3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수주 금액이 20억~30억 달러에 그쳤으나 작년 100억 달러 가까운 수주를 달성한 데 이어 올해에도 9월 현재 64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종별로는 플랜트 공사가 218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30% 가까이 감소했으나 전체에서의 비중은 여전히 50% 이상으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석유화학 및 정유 공장은 각각 63억 달러 및 31억 달러의 금액으로 두 배 내외 수주가 증가하였으며, 발전소는 지난해 실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63억 달러를 수주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스마야 신도시가 포함된 건축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수주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30%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도로와 철도 부문에서 각각 28억 달러와 10억 달러를 수주하여 총 55억 달러를 기록 중인 토목 역시 전년 대비 10% 증가하여 2012년은 전반적으로 토건공사 수주가 양호한 상황이다.

내년도 수주 600억 달러 안팎 전망

우리 업체들의 해외건설 수주는 연도별로 다소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3년에는 유로존 위기로 유발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 지연되었던 상당 규모의 공사 계약과 신규 공사 발주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수주 금액도 작년의 591억

달러나 올해 예상되고 있는 600억 달러대 이상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수주가 확정되었거나 유력한 단계에 있는 400억 달러 가까운 공사의 계약이 금년 말과 내년 초에 대부분 마무리될 예정으로 상당 부분이 2013년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지역의 건설경기는 고유가를 기반으로 2013년에도 활황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MEED Projects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중동에서 발주된 석유, 가스 및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 규모는 총 710억 달러였으며, 내년 6월까지 이보다 45%가 증가한 1,030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EPC 공사가 추가로 발주될 예정이다.

이처럼 중동에서는 사우디와 UAE, 오만 등 기존 산유국 외에도 이라크나 리비아 등 전후 복구사업을 추진 중인 산유국들에서 신규 생산 및 처리시설 투자가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앞으로도 상당 기간 플랜트 및 인프라 공사 수주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우리 업체들의 높은 경쟁력도 수주 확대 전망을 뒷받침해 준다. MEED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중동지역 석유, 가스 EPC 공사 수주 상위 10개사 중 4개사가 우리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산유국들이 2011년 자스민혁명 이후 도로, 학교, 주택 등 민생 인프라 건설을 늘리고 있는 것도 수주 전망에 긍정적이다. 특히, 세계경제 침체가 심화되어 제품 수요가 감소할 경우 석유화학 등 플랜트 발주가 감소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토건사업 확대는 안정적인 수주 전망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2년 6월 한화건설이 수주한 이라크 주택사업은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아시아 지역 역시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을 중심으로 수주가 지속될 전망이다. Global Insight는 “Global Construction Outlook”에서 전 세계 건설시장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이 유럽 재정위기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전년 대비 6.3% 증가할 것이며, 앞으로도 연평균 5%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남아 시장은 ADB, 일본, 중국 등의 자금이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BNP 파리바, 소시에테제네랄 등 유럽계 은행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계 금융기관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남미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플랜트 등 대형 공사 수주에 연달아 성공하면서 수주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칠레, 브라질 등에서 수주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프리카 역시 우리 업체들의 시장 다변화를 위한 핵심 지역이나 전통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 업체들과 함께 최근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의 약진으로 수주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에서 수주가 기대된다.

한편, 최근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럽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2010년 1유로당 1.33달러였던 유로화 환율은 2012년 현재 1.23달러로 8% 정도 하락하였는데 이를 단순히 계산해보면 입찰에서 공사 규모에 따라 수천만 달러 이상의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유로화 가치가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과 함께 유럽 업체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공격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업체와의 가격 경쟁을 한층 치열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주요 기업들의 경우 입찰 참여와 공사 수행 시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다양한 방식으로 헷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면 유럽 금융기관들의 신용 하락에 따른 본드 발급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머잖아 연 1,000억 달러 수주 가능할 듯

Global Insight가 추정하고 있는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7.5조 달러 정도로 전년 대비 약 2.5% 성장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 연간 5% 내외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 지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해외 건설시장은 전체의 8~1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전 중동, 동남아와 함께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따른 건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건설은 앞으로 성장 한계에 도달한 국내 시장을 대신해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할 수 있는 광활한 시장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석유, 가스 플랜트 공사 외에도 원전, 고속철도, 한국형 신도시, 물시장, 자원 연계 패키지형 사업 등으로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앞으로 해외건설은 단순한 수주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시장 다변화와 기술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 원천 기술 확보 등을 통해 수익성과 부가가치를 함께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CERIK